

통합특별시의회 준비 '난항'...출범 초기 혼선 불가피

청사 위치·권한 배분 등 핵심과제 산적
시·도의회 이전 지속 주도권 갈등 격화
의사결정 주체 부재...구성 논의 제자리
운영 차질 우려 '컨트롤타워' 구축 절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특별시의회 준비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통합의회 청사 위치 문제를 비롯해 구성·운영 방안을 놓고 시·도의회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다, 이를 조율할 의사 결정 주체마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출범 이후 의회 운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월1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통합특별시의회가 개원할 예정이지만 의회 구성·운영 방식 등 사전 준비가 뚜렷한 의사 결정 주체 없이 지연되면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현직 시·도의원들이 지방선거에 뛰어들면서 통합의회 준비가 방치되다시피 해 통합의회 정상 개원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도의회 통합을 의원 합의에 기반한 구조인 만큼 사전 준비를 주도하기 어려운 제약도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집행부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회는 배제되는 이른바 '의회 패싱'이 지속되고 있다. 통합특별법에 행정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명시한 것과 달리, 통합의회 청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도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가장 큰 문제는 통합의회 출범과 동시에 의장 선출과 조직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본조례와 운영규칙, 상임위원회 구성 근거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으면 의회 기능이 상당 기간 마비될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통합의회가 출범 직후부터 조직 개편과 정원 조정, 예산배분 등 급박한 안건을 통합 초기 단계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의장단 구성 지연은 곧바로 행정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재 시·도의회의원이나 사무처 모두 차기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어 주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의회 청사 문제 등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만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합의회 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의 조정 기구(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사전 준비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이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당선자 워크숍이나 합동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장단 구성 방식

과 권한 배분 원칙, 의회 운영 틀을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과 광주 간 의석수 격차를 고려해 의정직 교대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 권력 분점 장치를 사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함께 당내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의회사무처 통합 운영안과 기본조례 초안, 의장단 당내 경선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통합 논의에 비해 의회 통합 준비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통합 이후 초기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권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번진기자

민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완료 22개 시·군 중 11곳서 현역 공천장

6·3 지방선거 D-37

여수 서영학·장성 김한중 후보 확정
4명 3선·박우량 '징검다리 5선' 관심



서영학 김한중

으로 연기됐다. 김한중·박노원·소영호 후보 간 3인 결선 끝에 김 후보가 승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3명의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장성군수 후보로 공천하기로 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2·3면

22개 시·군 중 11곳에서 현역 단체장이 공천장을 거머쥔 가운데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철우 보성군수, 김산 무안군수, 김성 장흥군수(징검다리 3선) 등 4명은 3선 도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특히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의 징검다리 5선 성공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정기명 여수시장과 이상익 함평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등 현역 단체장 3명은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26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경선 결과, 여수시장 후보로 서영학 후보, 장성군수 후보로 김한중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여수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당원 명부 유출로 한 차례 연기된 본경선을 거쳐 서영학·김영규 후보가 결선에 진출해 서 후보가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장성군수 후보 경선도 경로당 대리투표 의혹

26일 밤 늦게 발표된 화순군수 후보를 제외한 민주당의 21개 시·군 단체장 후보는 목포시장 강성희·순천시장 손훈모·여수시장 서영학·나주시장 윤병태·광양시장 정인화·영암군수 우승희·강진군수 차영수·진도군수 이재각·해남군수 명현관·신안군수 박우량·함평군수 이남오·보성군수 김철우·곡성군수 조성래·고흥군수 공영민·구례군수 장길선·담양군수 박종원·영광군수 장세일·장흥군수 김성·무안군수 김산·완도군수 우흥삼·장성군수 김한중 후보다. /김재정기자

Today

광주시민 6명 중 1명 '혼자신다' 2면

신의얼굴 삶을비추다...남아시아가면극 15면

박재현, 데뷔 첫 홀런 1회 선두타자 홀런 16면



"고유가 지원금 사용하세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일을 하루 앞둔 26일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5월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한다. /김애리기자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기초 55만원, 차상위·한부모 45만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만원 추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관련기사 2면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

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

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18일-7월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김진수기자

(주)송천

전기공업 · 신재생 에너지기업 · 태양광 발전 시공/인허가

태양광 완벽 시공 기술...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한다

(주)송천은 건물 태양광 발전과 농촌 태양광 발전 등을 시공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해 10여년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어와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매출 100억원을 달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승환 대표이사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에 위치한 (주)송천 전경



(주)송천

본 사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322 2동 1층
광주사무실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6-2(월출동 971-39, 2층)

TEL. 062) 972.1527 / H.P. 010.9882.2405